희생·봉사의 삶 … 대한민국 밝힌 '등불'

제 37회 光日보훈대상 영광의 얼굴들

'제37회 광일보훈대상'(光日報勳大賞) 시상식이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 장갑수 광주지방보훈청장,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을 비롯 시민·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오후 3시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유족과 전·공상군경의 장한 삶을 되새기기 위한 이날 행사에서는 김경중(순직군경 유족·49·광주시 북구 동림동)씨, 김종옥(공상군경 1급 처·61·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씨, 문대식(특별부문·67·광주시 광산구 월곡 2동)씨, 양병순(전상군경 유족·72·광주시 서구 양동)씨, 정충용(전상군경·61·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씨 등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광일보훈대상'은 호국·보훈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훈가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광주일보사가 제정했다. 영광의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순직군경 유족 김경중씨

광주훈운회 활동 하며 군인 가족들 일자리 창출

김경중(49)씨는 순직군경 유족의 장남으로서 어려운 가정을 이끌면서도 국가유공자 광주훈운회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씨는 광주천 고수부지 환경보호캠페인, 현충일 참배객 무료수송 봉사활동, 위문품 및 위로방문 등 어려운 이웃돕기, 보훈병원 위로행사에 자원봉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 광주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창업무료상담 컨설팅 강사로 활동하며 퇴직 장기근속 군인가족에게 사업용차량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다.

투철한 봉사활동으로 2007년 광주시장상을 받았으며, 2008년과 2009년에는 광주지방경찰청 감사장을 수상했다.

공상군경 처 김종옥씨

1급 중상 남편 재활치료 … 41년간 손발되어 헌신

김종옥(61)씨는 1961년 5월29일 육군에 입대해 1969년 3월3일 월남 디안지역에서 건물페인트 공사중 안전사고로 척추신경 부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돼 육군중사로 제대한 공상군경 안택우씨의 아내다. 남편이 1급 중상자로 하반신이 마비됐지만 마사지와 재활 운동 등 41년간 남편의 손발이 돼주며 헌신적으로 간호했다.

김씨는 불구의 남편과 두 아들을 부양하며 하숙·그릇가게 등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했고, 남편의 재수술과 치료를 위해 궁핍한 생활에서도 헌신적으로 방법을 찾아 다녔다. 2007년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표창 장한아내상을 수상했으며, 광주보훈병원에서 일주일에 8시간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특별부문 문대식씨

의병활동 체험장 등 항일 독립정신 고양에 힘써

문대식(67)씨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한 고 문사훈씨의 장남으로 30년간 영어교사로 재직하면서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다.

구한말 최대 의병격전지인 광주 광산구 어등산에 체험학습장을 설치해 문화답사 필수코스로 선정되도록 했다. 또 광산문화유산해설가 회장으로서 광산의병정신 해설 및 어등골 문화특집을 기획했으며, 인터넷 방송과 카페에 독립운동사 및 의병사 자료를 게재하는 등 항일 독립정신 고양에 힘쓰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 역사문화해설, 황룡강 생태환경지킴이, 불우청소년학교 자원봉사 등 광복회 유족회 부회장 및 총무로서 봉사하고 있다.

전상군경 유족 양병순씨

전상 남편 간병에 시어머니 봉양·불우이웃 돕기도

양병순(72)씨는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탄 파편으로 부상을 입고 치료 후 복귀했지만, 후유증으로 빈이두암이 발병해 1999년 사망한 전상군경 정인봉씨의 아내다.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타인에게 간병을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지극정성으로 간병하고, 시어머니가 101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는 등 부모에 대한 효성도 지극했다.

행상·하숙·기사식당·연탄장사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3남 1녀를 훌륭하게 성장시켰다.

고령으로 본인의 몸이 불편한데도 불우이웃돕기·자원봉사·지부행사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전상군경 정충용씨

상이군경회 광주지부 회원들 화합·권익보호 앞장

1970년 2월23일 육군에 입대해 맹호부대 12연대 12중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된 정충용(61)씨는 1971년 2월23일 월남 송카우 지역에서 참전중 대퇴부 관통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같은 해 3월2일 전투 중 혁혁한 전공을 세워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정씨는 우측다리 부상으로 걸음걸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회사에 입사해 근면성실하게 근무하여 모범사원 표창을 수상했고, 아파트 주민대표직을 맡은 후 주민들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발휘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주시지부에 근무하면서 회원들의 화합과 권익보호·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수족구병 주의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8일 수족구병과 무균성뇌수막염 등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병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돼 소아건강과 개인위생 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당부 된다고 8일 밝혔다.

시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수족구병·무균성뇌수막염·뇌염 등 환자 검사대상물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이들로부터 검출된 엔테로바이러스 중 지난 2008년부터 중국에서 유행해 많은 사망자를 낸 엔테로바이러스 71형(EV71)이 63.9%(72건 중 46건)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올 들어 검출된 엔테로바이러스 중 EV71는 1-3월에는 17건 중 9건, 4월엔 17건 중 14건, 5월엔 38건 중 23건 등으로 기온이 높을수록 더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관계자는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수족구병과 무균성뇌수막염 증상에 그치지만, 간혹 폴리오바이러스와 같이 중추신경계 감염을 유발해 마비증상과 심각한 뇌염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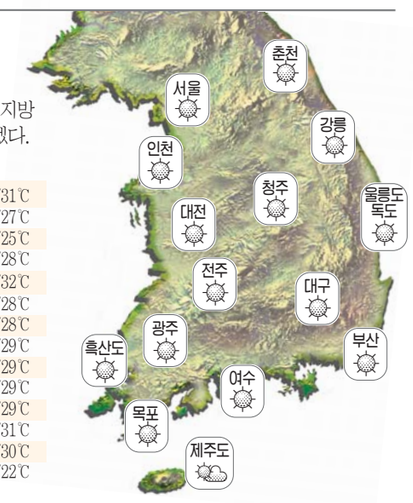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18분 해짐 19시 46분 달뜸 02시 25분 달짐 16시 35분

하늘길 열려라

대체로 맑겠으나 남해안 지방은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다.

광 주	맑음	17/31℃
목 포	맑음	17/27℃
여 수	맑음	18/25℃
완 도	맑은뒤구름많음	17/28℃
구 례	맑음	15/32℃
해 남	맑음	16/28℃
장 흥	맑음	16/28℃
고 흥	맑은뒤구름많음	15/29℃
순 천	맑음	16/29℃
영 광	맑음	16/29℃
진 도	맑음	15/29℃
전 주	맑음	16/31℃
남 원	맑음	14/30℃
흑산도	맑음	16/2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0.5m
먼바다	동~남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매우높음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0.5m
먼바다	동~남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먼바다	동~남동	0.5~1.5m

	밀물	썰물
목포	11:21	05:03
	--:--	16:59
여수	06:25	00:26
	19:06	12:3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날 씨						
최저/최고	18/30	19/27	19/27	18/30	18/30	18/30

교과부 '의사 양성체제 대학 자율' 방침

전남대·조선대 '의대' '치대' 복귀할 듯

교육과학기술부가 '의사 양성체제'를 대학 자율에 맡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대와 조선대는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를 의대·치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8일 "대학이 의전원(4+4년)과 기존 의대(2+4년) 학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안을 정부가 조만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전원 자율화 방안을 놓고 청와대 등과 최종 조율을 하고 있으며 이달 말께 확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전원은 의대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취지로 2005년 도입했지만, 주요 대학의 반발로 현재 전환율이 국내 의대 입학정원 3013명의 54.5%(1천641명) 수준이다.

조선대는 당시 의대와 치대가 모두 100% 의전원으로 전환했으나 전남대의 경우는 치대는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했으나 의대는 의전원과 50 대 50을 유지했다. 하지만 의전원으로의 전환 이후, 타지역 학생들의 지원은 증가한 반면 광주·전남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유출은 늘어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의사 양성체제가 자율화가 확정되면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등도 의전원을 폐지할 방침으로 알려지는 등 대다수 대학들이 의대로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는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을 예전의 의대·치대로 전화하되, 전문대학원 준비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 시기를 2012~2014년으로 잡고 있다.

전남대도 의학전문대학원을 의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조만간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대학원 존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김수관 원장은 "치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험생과 재학생들의 파장이 큰 만큼 유예기간이나 편입생 규모 등에 대해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수석교사 젊어진다

자격 경력 15년으로 단축

일정 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인정받은 교사를 우대하고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석교사제의 자격요건이 경력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수석교사의 자격요건 중 교육경력을 애초 안보다 5년 단축하고, 자격갱신 주기도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석교사의 활동기간을 5년씩 두 차례, 10년으로 제한한 내용도 삭제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